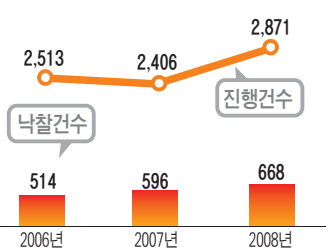


'불황' 여파 경매 '붐물'

■ 광주·전남 영업용 부동산 경매 추이
(상반기 기준, 단위:건수)



27일 경매정보업체인 이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경매에 부처진 상가와 찜질방 등 업무·상업용 부동산은 2천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천406건)에 비해 19.3%(465건) 증가한 것으로, 고유가와 불황 등으로 인해 대출이

자 조차 갖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올 상반기에만 1천604건의 영업용 부동산이 경매에 부처졌다. 이같은 경매 건수는 1년 전(1천93건) 같은 기간보다 46.8%(511건)나 늘어난 것으로, 지역 내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찜질방과 모텔 등 일부 업종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예 '빚더미'에 나앉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는 상반기에 동구 총장로의 M빌딩 등 상가건물과 찜질방, 장례식장 등이 대거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전남도 구례군 N호텔 등 숙박업소와 사우나,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경매가 잇따르면서 지역 내 업주들의

유기금등과 불황 등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전남의 대형 상가나 숙박업소 등 영업용 부동산이 대거 법원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찜질방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 가치가 '곤두박질'하는 등 지역 상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상가·숙박업소·찜질방 등 '출도산' 광주·전남 상반기 2,800여건 달해 낙찰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경영난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이들 영업용 물건은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대부분 4~5차례 유찰되는 것은 기본이고, 응찰자 수도 한정돼 낙찰가가 '바다'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산월동 B찜질방은 지난 2006년 11월 경매에 나온 이후 무려 11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19일 3천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낙찰가는 감정가(52억6천만원)의 36.7%로, 불황과 업종간 경쟁 심화로 인해 투자 가치가 3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다. 순천시 조례동의 D스포츠센터도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42%(47억7천700만원)

에 낙찰됐다. 광주도 총장로의 M빌딩이 5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29%(27억9천만원)에 낙찰되는 등 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은 올 상반기 영업용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8.5%까지 떨어졌다. 경매 물건 대부분이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지옥션 김은 팀장은 "영업용 부동산의 가치하락은 불황과 과잉 공급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업종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성을 고려한 투자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 제품도 디자인이 경쟁력" 전남도, 디자인 개발비 직접 지원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전남도가 제품 생산 능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 개발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력강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27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디자인을 개발해 사용하면 나중에 해당 디자인을 평가, 개발비를 차

등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제품이 걸맞은 포장과 시각 디자인을 개발하지 못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서는, 먼저 회사 실정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해 수출 마케팅에 사용한 뒤 나중에 그 결과물을 전남도에 제출해야 하며, 도에서는 연말에 전문가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개발비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전남도 통상수출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는 3개 등급으로 나뉘어 A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비의 60%까지 보조해주며, B등급은 50% 그리고 C등급은 40%까지 지원해준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지친 피부를 보호하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아베다 매장에서는 적극적인 여름태양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식물추출물과 아로마향 등 다양한 바디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품>

빚 못갚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고유가에 경영난... 은행권 부실대출 확대

경기부진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부실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은 0.70%로 작년 말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중소기업 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1.06%로 0.07%포인트 높아졌

다. 이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며 따른 것으로 향후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전체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0.78%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 공장 견학 '줄을 서시요'

방향 맞아 가족단위 방문 프로그램 확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제철소를 찾는 10만 이하 가족단위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철강산업과 광양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되고 있는 일반인 단체 및 주말 가족단위 견학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총 14회에 걸쳐 운영된다. <사진>

견학은 중앙동 커뮤니티센터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홍보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견학버스를 이용해 철이 만들어지는 제철소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이뤄진다. 견학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방문 예약은 전화 또는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m)로 가능하며, 방문을 원하는 날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하반기 신제품 개발사업' 내달 신청·접수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확장·광고하고, 다음달 11~26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이 성공했을 경우 구매기관

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만 전국적으로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일반과제는 3억원, 투자연계과제는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각 구매기관이 제출해 채택된 163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자금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및 사업관련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

1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8.4%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안 좁혀져

1·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정보기술(IT) 부문과 비(非)IT부문,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7일 상용근로자 5명 이상 7천208개 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1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22.8(2005년=100)로 작년 1분기에 비해 8.4%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산출량을 노동자와 노동시간을 곱한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것이다. /연합뉴스

1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됐지만 수출증가에 따라 제조업 산출량이 10.6% 늘었고 노동투입량은 2.1% 증가에 그쳐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 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0.2%에서 4분기 8.1%로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에 8.4%로 반등했다. 부문별로는 대기업(10.1%)과 중소기업(3.2%)의 생산성증가를 차이는 6.9%포인트로 조사됐고 중화학공업(10.8%)과 경공업(1.8%)의 차이도 9.0%포인트로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컸다. /연합뉴스

직장인 '급여통장' 판매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직장인 전용 '농협급여통장'을 지난 24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에 들어갔다. 농협급여통장은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직장인 전용상품으로, 이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하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등 예금관련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지역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이 여행사

대한항공편
제주도 2박 3일 여행 상품 439,000

대한항공편
제주도 3박 4일 여행 상품 535,000

대한항공편
제주도 4박 5일 여행 상품 559,000

대한항공편
제주도 5박 6일 여행 상품 489,000

일본 4박 5일 여행 상품 299,000

목포 / 압해도 바지락 체험 (당일반환)

성인: ₩29,500
아동: ₩25,500

바지락 체험, 바지락 요리, 바지락 판매

국내 여행 상품

제주도 2박 3일 170,000

제주도 3박 4일 140,000

제주도 4박 5일 214,000

제주도 5박 6일 303,000

제주도 2박 3일 99,000

제주도 3박 4일 99,000

제주도 4박 5일 289,000

제주도 5박 6일 289,000